

**미래에셋TIGER인도니프티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E0556)**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미래에셋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b>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b> 를 감안하여 <b>2등급</b>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b>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b> 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을 주로 <b>주식</b> 에 투자함으로써 <b>주식가격변동위험, 파생상품위험, 국가위험, 추적오차 위험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b>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미래에셋TIGER인도니프티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목적	<b>1. 투자목적</b> 주식,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Nifty 50 지수(Price Return)(원화환산)"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전략	<b>2. 투자전략</b> 이 투자신탁은 NSE에서 발표하는 "Nifty 50 지수(Price Return)(원화환산)"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인도에 상장된 주식,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합니다. 해외거래소 장내에서 거래되는 지수 선물(싱가포르에 상장된 "Nifty 50 Futures"등)에도 일부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수 선물의 통화와 투자신탁 자산의 통화간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서도 환헤지를 하지 않으므로 1좌당 순자산가치는 기초지수의 원화환산 수익률에 연동하게 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파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투자비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클래스 종류</th> <th colspan="5">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단위: %)</th> <th colspan="5">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th> </tr> <tr> <th>판매 수수료</th> <th>총보수</th> <th>지정참가회사보수</th> <th>동종유형 총보수</th> <th>총 보수·비용</th> <th>1년</th> <th>2년</th> <th>3년</th> <th>5년</th> <th>10년</th> </tr> </thead> <tbody> <tr> <td>투자신탁</td> <td>-</td> <td>0.19</td> <td>0.001</td> <td>-</td> <td>0.34</td> <td>34</td> <td>71</td> <td>109</td> <td>191</td> <td>424</td> </tr> </tbody> </table> <p>(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b>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b>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p> <p>(주2) "<b>동종유형 총보수</b>"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p>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지정참가회사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투자신탁	-	0.19	0.001	-	0.34	34	71	109	191	424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지정참가회사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투자신탁	-	0.19	0.001	-	0.34	34	71	109	191	424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클래스 종류</th> <th rowspan="2">최초 설정일</th> <th>최근 1년</th> <th>최근 2년</th> <th>최근 3년</th> <th>최근 5년</th> <th rowspan="2">설정일 이후</th> </tr> <tr> <th>23.04.12~24.03.31</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투자신탁</td> <td rowspan="3">2023.04.12</td> <td>-</td> <td>-</td> <td>-</td> <td>-</td> <td>24.54</td> </tr> <tr> <td>비교지수</td> <td>26.06</td> <td>-</td> <td>-</td> <td>-</td> <td>26.89</td> </tr> <tr> <td>수익률 변동성</td> <td>11.24</td> <td>-</td> <td>-</td> <td>-</td> <td>11.24</td> </tr> </tbody> </table> <p>(주1) 비교지수 : Nifty 50 지수(Price Return)(원화환산) * 100%</p> <p>(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p>							클래스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3.04.12~24.03.31	-	-	-	투자신탁	2023.04.12	-	-	-	-	24.54	비교지수	26.06	-	-	-	26.89	수익률 변동성	11.24	-	-	-	11.24					
클래스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3.04.12~24.03.31	-	-	-																																					
투자신탁	2023.04.12	-	-	-	-	24.54																																				
비교지수		26.06	-	-	-	26.89																																				
수익률 변동성		11.24	-	-	-	11.24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써,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24.03.31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파생형)(단위: %)				운용 경력년수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남호	1988	(책임) 본부장	17개	98,048억원	8.16	-2.14	8.14	-2.75	4년0개월
이도선	1997	(부책임) 매니저	4개	5,687억원	37.59	-	8.14	-2.75	2년11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현황과 수익률은 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1.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에 일부 투자할 수 있으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위험에 관한 지표(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만기 손익 구조, 시나리오법에 의한 손익변동, 최대손실금액 등)는 "미래에셋자산운용(주)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 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가 격 변동위험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들은 주로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주식과 같은 가격변동위험이 있습니다. 주식의 가격은 해당종목 발행회사 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외의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환 헤지 미시행)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율변동위험 제거를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외 국통화에의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에 100% 노출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KRW)와 해당국가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외국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투자금액을 고려하시어 이 집합투자기구와는 별도로 환헤지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국가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매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 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해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 당국가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신흥국가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투자시 신흥국가에 투자하게 되므로 앞서 설명된 국가위험 측면에서 매우 높 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신흥국가의 경우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이 상대적 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투자수익률에 직/간접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따른 위험(지역)	이 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 성 및 투자한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 은 전체 투자 가능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Tracking Error) 위험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할지라도 아래의 여 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 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과 추적대상 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 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 제약요소 : 현물과 선물 사이의 가격 괴리, 선물 투자시의 롤오버 효과, 상/하한가, 거래정지 등으로 인한 미체결, 인덱스 운용 시 활용하는 모델의 지수추적 괴리, 환율변동, 운용/판매 등 각종 보수, 위탁매매수수료, 지적재산권 수수료와 같은 여러 가지 운용관련 비용 발생, 너무 작은 운용규모, 대량 또는 빈번한 설 정/해지 등
	대체자산 편입에 따른 비용 증가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외에 기초지수 관련 ETF 및 파생상품(선물, 스왑)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운용전략은 집합투자기구 총보수 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 다.
매입방법	-개인투자자 :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 매수 -법인투자자 : 장내매수, 설정청구	<b>환매방법</b> -개인투자자 :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 매도 -법인투자자 : 장내매도, 환매청구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산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1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1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investments.mirae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한국거래소(www.krx.co.kr) 인터넷 홈페이지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b>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b> 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시행(2010년 7월 1일)에 따라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도 보유기간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소득금액, ETF 매수가격등의 적용기준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국내주식형 ETF(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자산운용(주) (대표번호 : 1577-1640 / 홈페이지 :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제한을 두지 않음
효력발생일	2024년 04월 09일	종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43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판매회사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및 QR코드
-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investments.miraeasset.com)



[알림]

NSE Indices Limited("NSE")는 이 투자신탁을 후원, 보증, 판매 혹은 판촉하지 않습니다. NSE은 일반적으로 증권 또는 특정하게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것의 타당성이나 인도 주식 시장의 성과를 추종하는 Nifty 50 지수의 능력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 또는 일반인들에게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어떠한 진술 또는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NSE은 Nifty 50 지수를 결정, 구성, 계산함에 있어 미래에셋 자산운용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의 요구를 고려할 의무가 없습니다. NSE은 발행될 이 투자신탁의 시기, 가격 또는 수량의 결정 또는 이 투자신탁을 현금으로 환산하는 산식의 결정 또는 계산에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NSE은 이 투자신탁의 관리, 마케팅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없습니다.

NSE은 Nifty 50 지수 및 이에 포함된 자료의 정확성 또는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에 포함된 오류, 누락 또는 중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SE은 Nifty 50 지수 및 이에 포함된 자료를 사용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 일반인 또는 기관이 얻은 결과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NSE은 지수 또는 이에 포함된 자료와 관련하여 특정 목적 또는 용도에의 시장성이나 적합성에 대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며, 모든 보장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NSE은 모든 직접적, 특별적, 징벌적,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손실을 포함)을 포함해서 이 투자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또는 모든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인하며, 이는 이러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공지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